

뉴스 라운드업

- 미·이란 호르무즈 해협 재개 협상 기대에 WTI 5.69% 급락, 3 주래 최저
- 유가 하락에 미 국채금리 동반 하락(10 년 4.615%, -6.1bp), 9 월 인상 확률 68%→59%로 완화(여전히 인상 우세)
- AI 실적 호조에 미 증시 사상최고치 경신, S&P500 +1.79%·나스닥 +2.59%
- 베센트 재무장관 '일본 총력 지원' 발언 속 엔화 개입 효과 유지, 미 고용·제조업 지표는 혼조

호르무즈 해협 재개 기대가 유가를 끌어내리며 국채금리 하락과 뉴욕증시 사상최고치를 동시에 이끌었다

카타르와 미국 재무장관 베센트, 국무장관 루비오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미·이란 합의 가능성에 진전이 있다고 잇달아 언급하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밀렸다. WTI는 전장 대비 5.69% 급락해 3 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고,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소 완화시키며 미 국채금리를 끌어내렸다. 10 년물 금리는 6.1bp 하락한 4.615%, 2 년물은 4.7bp 내린 4.194%를 기록했다. 연방기금선물 시장에서는 9 월 금리인상 확률이 전일 68%에서 59%로 낮아졌는데, 이는 하우스 뷰가 짙어온 'Fed 매파 기조 대비 시장이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긴장 관계와 맥을 같이 하는 움직임으로, 인상 자체를 접는 흐름이라기보다 인상 강도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소폭 누그러진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흐름 속에 금은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반영해 0.57% 올랐다.

뉴욕증시는 팔란티어의 연간 매출 전망 상향과 캐터필러의 2 분기 이익 호조 등 인공지능(AI) 관련 실적 훈풍에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 완화 기대까지 겹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S&P500 과 나스닥이 각각 1.79%, 2.59% 오르며 마감했고 다우도 사상 최고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다. 상장 후 첫 실적을 발표한 스페이스 X는 스타링크 사업 호조에 힘입어 2 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92% 급증한 78 억달러를 기록, 시장 예상치 69.3 억달러를 웃돌았다. 다만 이날 뉴욕 마감은 오늘 아침판 기준 밤사이 세션으로, 전일 낮 시간에 이미 마감한 코스피·항셍·니케이 등 아시아 증시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랠리에 대한 아시아 시장의 반응은 오늘 개장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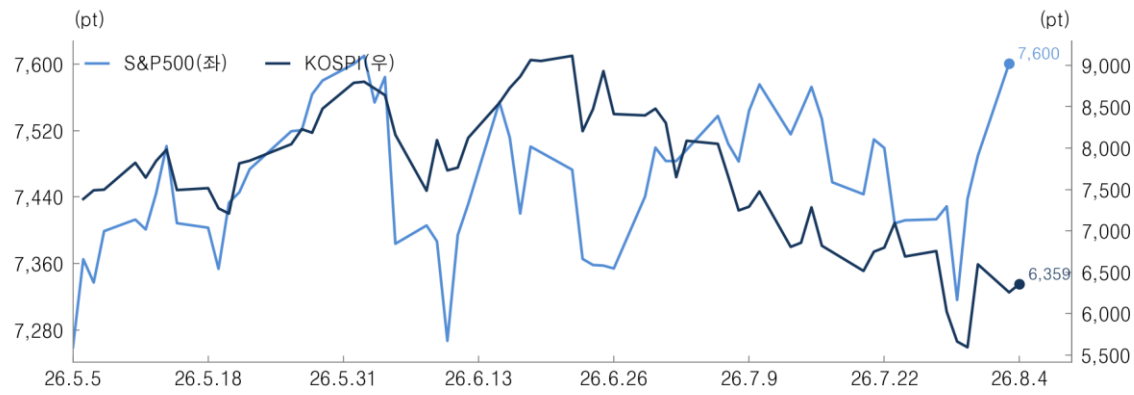
엔화 관련해서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도쿄와 워싱턴의 지난주 공조 개입을 두고 "일본을 돕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고, 엔저가 방지될 경우 경쟁적 통화 절하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놔다. 달러/엔은 개입 효과 대부분을 유지한 채 완만한 등락을 보이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 실물지표는 다소 엇갈렸다. 6 월 구인건수는 735.9 만 건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지만 채용은 늘고 해고는 낮은 수준을 유지해 노동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고, 6 월 무역적자는 수입 감소에 힘입어 5.6% 줄어든 733 억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6 월 팩토리오더는 시장 예상(+0.2%)과 달리 0.3% 감소해 하방 서프라이즈를 나타냈다. 관심은 이번 주 후반 발표될 비농업 고용지표로 옮겨가는 분위기로, 견조한 결과가 나올 경우 인상 우세 흐름이 재차 강화될 여지가 있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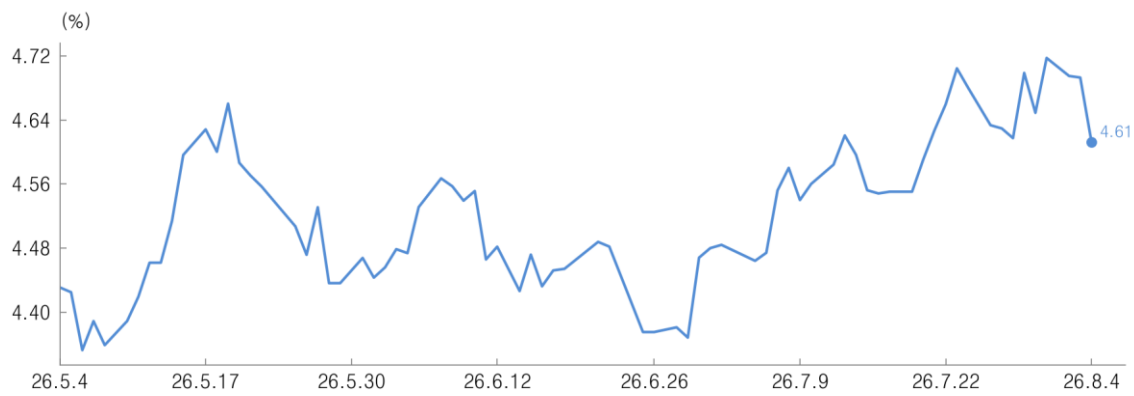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736.52	+1.79%	8/4 종가
	나스닥	26,585.00	+2.59%	8/4 종가
	STOXX 600	656.87	+0.73%	8/4 종가
	닛케이 225	63,957.46	+0.32%	8/4 종가
	CSI 300	4,600.93	+1.27%	8/4 종가
	KOSPI	6,358.95	+1.62%	8/4 종가
	항생	25,852.92	-0.60%	8/4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9.89	-0.10%	8/4 종가
	달러/엔	157.78	+0.05%	8/5 종가
	유로/달러	1.15	-0.02%	8/5 종가
	달러/원	1,429.45	+0.05%	8/4 종가
	달러/위안	6.75	+0.01%	8/4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615%	-6.1bp	8/4 종가
	미국 2 년	4.194%	-4.7bp	8/4 종가
	일본 10 년	2.853%	+2.9bp	8/4 종가
	독일 10 년	3.099%	-5.1bp	8/4 종가
	한국 10 년	4.249%	-0.4bp	8/4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85bp	+1.0bp	7/31 종가
원자재	WTI	75.77	-5.69%	8/4 종가
	금	4,077.57	+0.57%	8/4 종가
	구리	6.64	+1.57%	8/4 종가
변동성	VIX	16.49	+3.91%	8/4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미국 뉴스 70 건 HIGH	• 이란 휴전 협상 진전 신호에 유가 3 주간 최저로 급락, 연준 9 월 인상 기대 9 포인트 축소 ↳ 카타르 중재 관계자, 어제 호르무즈 해협 협상 진전 보도, 미국 재무·국무부 고위 관계자도 조기 합의 가능성 언급 ↳ 유가 4~5% 하락해 3 주간 최저 기록, 에너지 공급 리스크 완화 신호로 해석됨 ↳ 2 년물 국채 수익률 7 월 21 일 이후 최저(약 4.63%)로 하락, 연준 9 월 인상 확률 59%(전 거래일 68%)로 9 포인트 축소, 호르무즈 재개가 글로벌 인플레이 우려 경감의 핵심 판단 기준으로 작용 •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일본 엔화 안정화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 약속 ↳ 지난주 공동 통화 스왑 개입 이후 미국 지지 표명 강화, 저평가 엔이 경쟁적 통화 절하 연쇄 초래 가능성 경고 ↳ 유로 매각 후 엔 매입 조치는 자원의 '재배분'이라고 설명해 경제적 정당성 강조 ↳ 전 재무장관 가이트너 '개입만으로는 부족, 뒷받침하는 정책 조정 필요'라고 지적 • S&P 500·다우 사상최고 마감, AI 관련 기업 실적 호조와 중동 평화 기대 반영 ↳ 다우 +1.71%, S&P 500 +1.79%, 나스닥 +2.59% 상승으로 주요 지수 기록 경신, 기술주 주도 ↳ 펄란티르 26% 상승(연간 수익 지침 상향), 캐터필라도 2 분기 이익 상회로 강세 마감 ↳ 유가·채권 수익률 하락이 기술주 이익 전망 개선으로 작용 • 스페이스 X 상장 후 첫 분기 수익 92% 급증해 \$78 억 기록 ↳ Q2 수익 \$78 억(전년 \$41 억), 시장 예상치 \$69.3 억 상회, Starlink 위성인터넷 및 AI 사업 강한 성장 ↳ 순손실 \$5.41 억 기록했으나 향후 AI·우주 인프라 투자 \$183.7 억 집행으로 성장성 강조 • 트럼프 정부 태양광·반도체 핵심재 폴리실리콘에 가격 하한·관세 검토 중 ↳ 중국의 저가 수출 견제를 통한 국내 반도체·AI 공급망 강화 전략의 일환 ↳ 태양광 개발업체·칩 수입업체 비용 상승 우려, 최종 소비자에게 가격 상승 전가 가능성 • 금 1% 상승, 유가 약세가 인플레이 우려·금리 기대 완화 ↳ 현물금 \$4,086/온스(+0.8%), 선물금 \$4,152/온스(+1.5%) 마감 ↳ 유가 하락이 금리 인상 기대 축소에 직결, 향후 ADP 고용통계·연준 금리 경로 데이터 대기 중 • 오라클 대규모 AI·클라우드 투자로 정크급 신용등급 위험 진입 ↳ 상위 소프트웨어 기업 중 이상 사례, 현금 부족으로 대규모 차입 및 장기 리스 의존도 높음 ↳ 투자자들 AI 비용 폭증에 따른 부채 부담을 우려의 초점으로 지목, 주가 약세 지속 중 • 연방법원 EPA 의 바이든 시대 기후 보조금 \$200 억 동결 금지 판결 ↳ DC 순회법원, 2025 년 4 월 정지 명령 복구, 트럼프 행정부 소송 패소 ↳ 보조금은 청정에너지 진흥·비영리 기관 지원 목적이며, EPA 의 사기·낭비 우려 주장은 법원이 기각
일본 뉴스 8 건 HIGH	• 엔화, 미-일 공동 개입(지난 금요일) 이후 3 거래일간 최대 5% 상승, 투기적 약세 포지션 청산이 견인 ↳ 지난주 금요일(8 월 1 일) 미국·일본의 공동 엔화 매입 개입 이후, 엔화는 3 거래일 동안 최대 5%

권역	요약
	상승했으며 현재 157.72 엔/달러 수준에서 거래 중(3 개월 고가 155.20 엔/달러에 근접) ↳ 투기 세력의 엔화 약세 포지션(숏) 청산이 진행 중이며, 시장 참가자들이 당국의 추가 개입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며 포지션 증설을 꺼리는 중 ↳ 미국 재무장관 베네통, 일본의 엔화 약세 시정 노력을 평가하면서 일본은행(BOJ)의 추가 정책 조치를 기대한다고 발언, 엔화 약세로 인한 일본의 물가 상승을 지적 • 미-일 엔화 개입, 국채시장의 만성 리스크 신호로 작용(McGeever 칼럼) ↳ 미국 국채시장이 수십 년간 안고 있는 구조적 우려는, 중국·일본 등 최대 보유국의 대규모 매도가 차입비용 급등과 광범위한 시장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 ↳ 시장은 오랫동안 이 '극단적 시나리오'를 외면해왔으나, 최근 미-일 공동 개입은 이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됨 • 일본, 방위력 강화를 경제 성장의 경로로 제시(국방백서) ↳ 일본 정부 연간 국방 평가 문서에서 군비 증강을 국방뿐 아니라 경제 번영으로 향하는 길로 정의하며, 방위산업이 첨단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주장 ↳ 중국 국방부는 '백서가 거짓된 서사로 가득 차 있다'고 즉각 반박 • 연준 폴슨 위원, 금리정책 방향에 열린 입장 강조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7 건	• 캐나다 6 월 무역수지 4 년 최고 C\$38 억 6,000 만 기록(환율 약세 효과 주의) ↳ 4 개월 연속 흑자 달성, 시장 예상 C\$30 억을 상회 ↳ 5 월 무역수지 하향 조정: 속보치 C\$42 억 4,000 만에서 최종 C\$37 억으로 수정 ↳ 통계청 설명: 수치 개선이 실질 경제 강화가 아니라 캐나다달러 약세 때문(무역거래 대부분 미달러 기준이므로 환율 변동의 영향이 큼) • 캐나다 제조업 7 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3.5 로 4 년 최고 ↳ 7 개월 연속 확장 국면(50 이상) 진입, 2022 년 6 월 이후 최고 수준 ↳ 국내활동 강화로 생산·신규수주 증가, 다만 국제수요 약화로 상승세 지속성에 의문 • 미국 원유선물 -5.7% 급락으로 캐나다달러 약세 전환 ↳ CAD/USD -0.2% 약세(1.4070 달러/캐나다달러), 6 일 저점 근처 수준 ↳ 미국 원유 급락은 캐나다의 에너지 수출 의존도를 반영해 통화 약세로 이어짐 ↳ 채권 수익률 전반 하락, 안전자산 선호 심화 신호 • 발틱 건화물지수 4 일 연속 상승 ↳ 발틱 지수 +3.3% 상승(2,936, 2 주일 최고), 케이프사이즈(Capesize) 선박 부문 +4.7% 상승(6 월 5 일 이후 최고) ↳ 대형 선박 일당 용선료 상승, 철광석·석탄 해상 운송 수요 강화 신호
유럽 뉴스 8 건	• 이탈리아 예산감시기관, 2026 년 GDP 성장률을 0.9%로 상향 조정 ↳ 이란 분쟁 등 국제 지정학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력 견조 평가 ↳ 2 분기 전분기 대비 0.2% 성장 기록, 시장 예상치와 정부의 4 월 전망치(0.6%)를 모두 상회 ↳ 지정학·무역 긴장으로 인한 하방 리스크 내재 • 라인강 수위 1880 년 이후 최저 기록, 독일 제조·에너지 운송 차질 우려 ↳ Kaub 지점(얕은 수심 구간)의 수위가 역대급 저점 기록, 물류 통과량 제약 심화됨

권역	요약
	↳ 라인강은 독일 제조업 및 에너지 운송의 핵심 통로로, 수위 급락 시 경제 성장 리스크 가중됨 • 독일 화학사 Evonik, 이란 전쟁으로 인한 중동 공급망 병목 덕분에 2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 2분기 조정 EBITDA €6.3 억(\$7.25 억) 기록, 애널리스트 평균 추정치(€6.21 억) 상회 ↳ 중동 공급망 병목현상 속, 유럽 고객들의 역내 공급처 선호가 강화되며 수요 증가 ↳ 지역 내 소싱 전략 강점 입증 결과로 평가됨 • 유로존 국채, 미-이란 협상 동향 불명확 속에 전일 수준 보합 ↳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 3.16% 기록, 전일과 유사(지난 월요일 유가 급락 시 3.21%에서 5bp 하락 후 일부 회복) ↳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협상 임박 발언이 유가 급락을 유도했으나, 협상 신호 엿갈려 현재 교착 상태 지속
인도 뉴스 6 건	• 인도 선박 홍해에서 투사체 공격으로 격침, 선원 14명 전원 구조 ↳ 인도 국기선 'MSV Faize Noore Oliya' 예멘 인근 홍해에서 투사체 피격 후 격침, 승선 인원 14명(인도인 13명 포함)을 예멘 해안경비대가 구조, 목카 항(Port of Mokha) 입항 ↳ 인도 해운장관 Sarbananda Sonowal 공식 발표, 예멘 진정부군과 후티(Houthis) 반군 간 홍해 분쟁 악화를 반영하며 상선 공격 위협 지속 확대 • 인도 국채, RBI 정책결정 앞둔 포지션 구축으로 상승(유가 상승이 낙폭 억제) ↳ 벤치마크 채권(6.94% 2036년 만기) 수익률 6.8152%로 마감(전거래일 6.8343%) ↳ 인도중앙은행(RBI) 내일(수요일) 정책결정 앞두고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나, 시장은 유동성 지침 및 경제 전망 수정에 대해 포지션 조정 중 • 인도 주식, RBI 정책결정 앞두고 소폭 하락(신규 폐장 메커니즘 조정·파생상품 만기 임박) ↳ Nifty 50 지수 -0.64% → 24,614.90, BSE Sensex -0.27% → 78,428.95 마감 ↳ 변동성지수(NIFVIX) 12.1875로 1주일 최고치 기록, 신규 폐장 경매 메커니즘 적용 과정 중 주간 파생상품 만기(08/07) 임박으로 포지션 조정 확대 • 인도 루피화, RBI 정책 불확실성 속 보합(포트폴리오 유입과 헤지 매도 상쇄) ↳ 루피 증가 95.3775/달러(전거래일 95.3375), 거의 변화 없음 ↳ 상승 압력은 주식 자금조달 관련 외국은행의 달러 매도 및 유가 상승, 하락 압력은 국내 정유사·금 수입업체의 헤지 매도로 엿갈린 신호 속 루피화 좁은 변동폭 유지
브라질 뉴스 8 건	• 브라질 6월 산업생산 -1.8%로 설문조사 예상(-0.8%) 크게 밑돌아, 2025년 12월 이후 최대 낙폭 ↳ 소비재 생산(-3.7%)이 낙폭을 주도하며 전 4개 산업군 모두 마이너스 기록 ↳ 전년동기 대비 +1.7%로 설문조사 예상(+3.0%)을 크게 하회, 고금리 부작용 가시화로 금리 인하 필요성 커지는 중 • MSCI 라틴아메리카 지수 -0.3%, 통화지수 -0.4%, 유가 급락이 금속 가격 상승 효과 상쇄 ↳ 원자재 수출국 라틴아메리카의 금속 가격 상승 이득이 유가 급락으로 상쇄된 결과 ↳ 콜롬비아 페소는 월요일(3일) 큰 낙폭 이후 다시 강세 기록
EM 기타 뉴스 9 건	• 미국-이란 호르무즈 해협 협상 진행 중, 이란의 강한 통제권 요구 ↳ 이란이 오만과의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 시 입항 선박에 대한 통제권, 출항 선박 감시 및

권역	요약
	필요시 개입 권한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카타르 외교부 대변인이 모든 당사자와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외교적 해결을 추구 중인 점을 확인 ↳ 미국 재무장관 베네통트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 합의 도달 가능성을 시사 •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라이베리아 건화물선 정체불명 발사체에 피격 ↳ 선박명 미노안 파이오니어가 오만 해안 근처에서 엔진실에 직격당해 화재 발생, 선원들 화재 진압 중 ↳ 3 등 기관사 1 명 실종 • 결프 주식시장 대부분 상승, 미국-이란 협상 낙관론·기업실적 호조에 힘입음 ↳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추가 공격을 미루고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전일 거래에서 지역 시장 심리 개선 • 예멘 후티 무장단, 사우디 나즈란 공항 공격 주장 ↳ 후티가 텔레그램을 통해 나즈란 공항 타격을 발표, 사우디의 예멘 영공(사다·하즈자 지역) 드론 침입에 대한 보복으로 명분 제시 ↳ 후티는 지난달부터 홍해에서 사우디를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진행 중이며, 이를 사우디의 예멘 포위에 대한 대응이라 주장 • 남아공 랜드, 유가 하락·달러 약세로 강세 전환 ↳ 전일 오후 거래에서 남아공 랜드/미달러 환율이 16.3925 까지 상승, 전일 대비 약 0.9% 강세 ↳ 유가가 카타르·미 재무장관의 외교적 해결 가능성 발언에 따라 3 주 최저까지 약 5% 하락한 데 따른 움직임 • 우크라이나 2 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0.6% 성장, 전기대비 0.4% 증가 ↳ 우크라이나 통계청 발표 • 러시아 푸틴, 외국인·해외 기업 지사의 은행 예금 제한 해제 ↳ 2022 년 도입한 'C 타입 계좌' 제한 철회, 당시 제재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고 금융 봉쇄 목적으로 도입했던 조치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 조 1 항 5 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조재운)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 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자동 생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